



건설협회 도회 장학금·성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가운데)는 14일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화천군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및 이웃돕기 성금으로 총 2,000만원을 기탁했다.

도, 동흥천~인제IC 조기 개통 건의

강원도는 당초 2015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7년 상반기로 연기된 동서고속도로 동흥천~양양 구간 가운데 내년엔 동흥천~인제 IC구간의 조기 개통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착공한 동서고속도로 동흥천~양양구간(71.7km)은 당초 2015년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정부의 짙은 예산으로 내년말 개통도 불가능해지면서 2017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내년 말까지 준공하려면 486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한 내년 사업비는 3263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지난 7일 기재부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동흥천~양양구간 가운데 내년엔 동흥

천~내촌~인제 구간까지 부분 조기 개통을 건의했다.

도는 동해안으로 이어진 국도 44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동흥천~인제 구간의 조기개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오인 105in@kaod.net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

'나도 스피드 실천' 선포터즈 모집

- <http://www.2018smile.kr>
- 강릉시 동계올림픽지원단
- ☎(033)640-5561, 5947/010-8992-2018



2018 스마일캠페인 범시민 실천협의회



건설협 성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송정부)를 방문, 유계식 부회장에게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대한건설협 강원도회, 화천 장학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4일 오전 화천군청을 방문, 최문순 군수에게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건협 강원도회, 장학금·이웃돕기성금 20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4일 강원 화천군청을 방문해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강원도회는 이날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 유계식 공동모금회 부회장에게 이웃돕기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등록 말소된 건설업 재등록 기준 강화 필요”

건산연 보고서… 조직적 등록대여뎌 재등록 막아야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나 부실공사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재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업 진·출입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법인과 개인은 물론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임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건산연은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5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과 다르게 임원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에 따라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10년 이상으로 최대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 등록 대여나 알선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말소 후 재등록은 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최대 5년만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 대여를 조직적으로 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막아야 하고, 건설기술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동시에 부실시공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역시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가능 연수를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또 일괄 하도급에 대해서도 상습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년 범위에서 재등록 유예기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괄 하도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등록말소 규정은 없는 상태다. 김정석기자 jskim@